

옹진군자원봉사센터, 이웃 반찬 배달 '희망나눔' 실천

✎ 최기주 | ⓒ 승인 2024.02.19 14:26



옹진군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들이 이웃들에게 전달될 밑반찬들을 만들고 있다. 사진=옹진군청

옹진군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6일 영흥면에서 2024 희망나눔 밑반찬 전달 사업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 봉사단체가 만든 밑반찬을 소외계층에 직접 전달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업이다.

봉사자들은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밑반찬을 전달받는 주민은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다.

센터 소속 15개 봉사단체는 희망나눔 반찬 전달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50세대에 매월 2회에서 4회씩 밑반찬을 전달할 계획이다.

센터는 또 영흥면을 시작으로 옹진군 7개면으로 봉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홍득표 옹진군자원봉사센터장은 "앞으로도 봉사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주기자



최기주 rsafter@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